

지원사업 성과로 지역 활력 기대

전북문화관광재단,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선정 도키텍프로젝트협동조합 '남원 청년 영화제' 기획 운영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운영하는 지원사업의 성과가 도내 예술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단의 '2023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키텍프로젝트협동조합(이사장 김형준, 이하 도키텍)이 NOWWON(대표 오종하)과 함께 기획 운영하는 '제1회 남원 청년 영화제'가 바로 그 현장이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창작공간을 지원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공간 활성화, 예술인의 창작환경 조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올해 비거주형에 선정된 도키텍은 2017년에 설립된 단체로 도내에서 영화제작, 배급, 상영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재단의 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한 단편 영화 '스승의 날'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J비전상을 수상하고, 2022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며 성장하고 있는 예술 단체다.

도키텍은 지난 2022년을 기점으로 기존 전주시에 위치한 본원에 더해 남원시 구도심 유흥공간에 도키텍스페이스 남원점을 개소한 뒤 전주시와 남원을 공간적·예술적으로 이어 나가며



'제1회 남원 청년 영화제' 포스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도키텍은 '2022년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시와 남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 '시퍼루크'를 제작했으며, 이 작품으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성과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와 남원 등지에서 도민에게 무료로 영화 상영 축제를 선보이고, 도민들이 작가들과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생, 지역 연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올해 도키텍이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퍼블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우원플러스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제1회 남원 청년 영화제'는 15~17일까지 도키텍스페이스 남원점(상정동) 등 남원 일대에서 진행되며, 기간 중 상영되는 수십 편의 영화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또한 16~17일 오후 2시~8시에는 나우원 야외무대(하정2길 11)에서 남원 청년단체들과 함께하는 플라마켓과 홍보부스가 운영,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키텍 김형준 이사장은 "재단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한 결과 이번 '제1회 남원 청년 영화제' 개최까지 올 수 있었다"며 "영화를 통해 남원의 구도심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고자 나우원플러스와 공동으로 기획한 '제1회 남원 청년 영화제'에 많은 도민께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nwyyff.modoo.at)를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조은혜 '놀이:춤-골목에서' 무용공연

전주문화재단,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선정작... 19일 한벽공연장서 진행

조은혜(사진)의 무용공연 '놀이:춤-골목에서'가 오는 19일 오후 7시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사라지고 골목문화가 희미해진 사회에서 놀이 공간도, 놀 시간도 없는 아이들에게 과거의 놀이 문화를 돌려주고자 창작했다. 이날 공연을 통해 다양한 놀이 활동을 현대무용, 한국무용, 연기와 뮤지컬 등 복합적인 장르로 풀어 사라져가는 골목 문화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했다.

조은혜 무용가는 "아이들에게 과거의 놀이 문화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공연을 기획했다"며 "부가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콘텐트화해 어린이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보려할 수 있고,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연"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은혜와 함께 선정된 신진예술가는 시각예술가 고지은, 바이올리니스트 박민지, 소설가 방우리, 시각예술가 하태훈, 대금 연주자 황보석 등 총 6명이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전주의 유망한 젊은 예술가를 발굴 육성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연 문화예술 창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7)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찾아가는 특별강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이 박윤환 공예가의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9일 전북맹아학교(익산시)와, 21일 전북푸른학교(완주군)를 찾아가 80만 번의 손길, 화문석 공예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 중인 '책따루 인문학 강연'의 일환으로 시각장애 교

육기관인 전북맹아학교와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전북푸른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인문학 강연이다.

박윤환 공예가는 강화 화문석(꽃무늬 등을 짜 넣은 돗자리)을 상표화 해 화문석의 아름다움과 쓰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는 공예가다. 이번 강연을 통해 화문석만이 갖고 있는 뛰어난 가치와 아름다운 예술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공예기술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익산 서동축제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익산 서동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축제기간 내 문화누리카드로는 △식·음료 부스존, △마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라탄 공예 및 수제 약세사리, △유물 발굴 체험·페이스페인팅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전통문화 행사 다채

추석 맞아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전통정원서 진행

추석을 맞아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마련됐다.

14일 전주공예품전시관에 따르면 오는 16일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4개의 테마로 구성된 전통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지난 단오맞이 행사 시 진행했던 △전통놀이 왕을 찾아라 △순으로 붓으로 △호사원 인생샷 포토존 외 새롭게 △갖고싶다 호사원 굿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놀이 왕을 찾아라'는 전통놀이마당에서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투호놀이와 고리던지기 대항전도 진행된다. 경연에서 이기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순으로 붓으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상시 진행하며, 주어진 스케치 그림

에 붓으로 색칠해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행사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 '호사원 인생샷 포토존'이 마련돼 SNS이벤트와 함께 진행된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행사 참여 게시글을 올리고 인증을 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갖고싶다 호사원 굿즈' 이벤트는 전주공예품전시관 대표 캐릭터 '호기로운 호사원' 기획 상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호사원 굿즈는 공예의 주요 소재인 유리, 섬유, 한지사, 한지, 소목, 매듭을 활용해 제작했으며, 총 20종 개발로 5,000~30,000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호사원 굿즈 이벤트는 공예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공예인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지식살롱 12회차 강연 'AI 비즈니스 레볼루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전북지식살롱 12회차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연은 데이터마케팅코리아의 이진형 대표가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이라는 주제로 이뤄진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이진형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부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업 및 정부기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마케팅 영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컨설팅 및 강연을 활발히 펼쳐왔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겸임 교수로 활동 중이다.

특히 지난 8월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을 출간하며 인공지능이 개인과 기업의 업무를 어디까



지 대체할 수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이진형 대표는 "지금은 'AI'를 도입할 것이냐, 맡 것이냐를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장은성 기자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전북외국어 자원봉사사회, 업무협약

2023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관람객 맞이에 분주하다.

이에 따르면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송하진)는 지난 13일 전북외국어자원봉사사회(회장 나춘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비엔날레 개막식 및 전시 관람을 위해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주한대사, 해외 작가 및 귀빈들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3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에 많은 해외작가와 관람객, 주한국대사(8개국)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두 기관은 MOU를 맺고 개막식 및 주요 전시장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모니

제7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하차제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3시~ 전북도청 대강당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 합창단

마음모아 합창단

감새시립합창단

온고을어머니합창단

전주소은순합창단

전주어성합창단

원주소은순합창단

전주어성합창단